

# 해남군 수협 회사채투자자 수십억 손실 우려

## STX팬오션에 20억 투자...법정관리로 투자금 회수 불가능 전문 지식 없는 일부 조합간부 주도... 郡수협 “감사 등 조치”

해남군 수협이 회사채투자자 수십억 원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적인 금융인력이 거의 없는 군 수협이 수익을 보기 어려운 회사채에 투자한 것 자체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다.

2일 해남군 수협에 따르면 지난해 4월 D중회사를 통해 확정금리 6.08%에 2015년 3월 만기인 STX팬오션의 회사채에 2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 업체가 지난달 7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사실상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채 발행기업이 법원에 기업회생 계획을 제시해 이에 따라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는 투자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특히 소액투자자가 아니어서 향후 이 업체가 회생해 정상적인 경영에 복귀하더라도 10~20% 내에서만 받을 가능성이 높아 해남군 수협은 15억원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해남군 수협이 STX팬

자를 한 후 조합장에게는 후 보고를 했다는 ‘실’이 나오면서 철저한 내부 감사를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남군 수협 관계자는 “투자 당시 리스크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며 “기업회생 등의 추이를 지켜 본 후 감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회사채는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직접 발행하며, 주식과는 달리 회사의 수익에 관계없이 일정률의 이자가 지급되는 채권이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오션 외에 다른 회사채에도 100억원 이상을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큰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조합원인 김모(53)씨는 “회사채란 것이 기업이 자금의 유동성 부족 등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며 특히, 높은 금리를 주는 기업일수록 신용도나 기업이 우량하지 않을수록 이자율이 높다”며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일부 조합 간부들이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투자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회사채에 투자하면서 상임이사와 일부 간부직원들이 선투

자한 후 조합장에게는 후 보고를 했다는 ‘실’이 나오면서 철저한 내부 감사를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남군 수협 관계자는 “투자 당시 리스크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며 “기업회생 등의 추이를 지켜 본 후 감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회사채는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직접 발행하며, 주식과는 달리 회사의 수익에 관계없이 일정률의 이자가 지급되는 채권이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 함평군 5급 사무관 승진 인사 촉각 이달중 단행...보건소장 승진자 관심 높아

함평군이 5급 사무관 승진 등을 포함한 정기인사가 이달 단행될 예정이어서 공직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5급 사무관 2명과 2명명예퇴직, 1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행정직 5급 사무관 승진 2자리와 보건·간호직사무관 승진 1자리 등 담당(6급)을 포함한 후속 정기인사가 조만간 단행된다. 특히 보건·간호직인 보건의소장 승진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직원들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5급인 의회사무과장과 보건의소장이 명예퇴직하고 empty자리가 1년을 남겨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2~3명의 사무관 승진요인이 발생했다.

더욱이 함평군 최근 인사에서 1년을 남겨두고 공로연수를 신청한 것은 최근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empty장리의 공로연수 신청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또 4급 서기관급인 A실장이 후배들을 위해 자리를 이동하겠다는 뜻을 표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동함평산단조성 감사결과 감사원이 최근 5급 사무관 B씨에 대해 정직처리를 요구함에 따라 대규모 인사요인이 발생했다.

한편 지난해 초 부임한 장석홍 함평부군수는 지난해 27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35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함평=황윤희기자 hwang@

함평군이 5급 사무관 승진 등을 포함한 정기인사가 이달 단행될 예정이어서 공직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5급 사무관 2명과 2명명예퇴직, 1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행정직 5급 사무관 승진 2자리와 보건·간호직사무관 승진 1자리 등 담당(6급)을 포함한 후속 정기인사가 조만간 단행된다. 특히 보건·간호직인 보건의소장 승진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직원들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5급인 의회사무과장과 보건의소장이 명예퇴직하고 empty자리가 1년을 남겨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2~3명의 사무관 승진요인이 발생했다.

더욱이 함평군 최근 인사에서 1년을 남겨두고 공로연수를 신청한 것은 최근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empty장리의 공로연수 신청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또 4급 서기관급인 A실장이 후배들을 위해 자리를 이동하겠다는 뜻을 표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동함평산단조성 감사결과 감사원이 최근 5급 사무관 B씨에 대해 정직처리를 요구함에 따라 대규모 인사요인이 발생했다.

한편 지난해 초 부임한 장석홍 함평부군수는 지난해 27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35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함평=황윤희기자 hwang@

# 신안 여섯번째 농기계임대센터 신의면에 설립됐다

1004개 섬으로 이루어진 천사섬 신안군에 여섯 번째 농기계임대센터가 신의면에 설립됐다.

신안군은 2일 “1일 신의면에서 농업인단체 및 농업인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의면 농기계임대센터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08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을 압해읍에서 추진해 왔으나 14개 읍면 전체가 섬으로 구성되어 있어 선박을 이용, 군청 소재지인 압해읍까지 와서 농작업기를 빌려 써야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 같은 지역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신안군을 농업기술센터, 북부권, 중부권, 서부권, 남부권으로 5대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농기계임대센터 운영계획을 추진 중이다. /신안=이상선기자 sstee@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원은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60여명의 여행객이 참가한 가운데 신안 임자도 섬여행을 마쳤다. 전라남도의 '다도해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매달 진행되는 섬여행은 7월 목포 삼학도와 고지도 여행, 9월 완도 청산도 여행, 10월 진도 조도 여행 등을 남겨두고 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kwangju.co.kr

# “중기·소상공인 세정지원 주력” 김기호 해남세무서장

“문예와 충절의 고장 해남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일 해남세무서장으로 취임한 김기호(56) 서장은 취임사에서 “모든 직원들이 납세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하는 세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신임 서장은 또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세원정보 수집을 통해 세원 발굴에 노력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세무조사 완화와 탄력적 체납처

분 등의 세정 지원의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서장은 보성 출신으로 조대부고, 조선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7급 공채로 국세청에 임용돼 여수서 조사과장, 서광주서 부가세과장, 광주청 전산관리과장, 광주청 조사2과 조서관리과장, 감사관 등을 역임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 전북



남원 명물 친환경 복숭아 수확

낮 최고기온 섭씨 30도가 넘었던 지난 1일 남원시 금지면 임암리 안홍섭씨가 고품질 친환경 노지 복숭아 수확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송동면, 금지면, 주성면 등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고 배수가 잘 되는 지리적 여건으로 고품질 친환경 복숭아의 명산지로 알려져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 ‘주민 소통’ 우선시 하는 정읍시 ‘시민과의 대화’ 건의 579건 추진 상황 보고회

정읍시는 민선5기 3주년을 맞아 김생기 시장을 비롯한 관과 소장과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시민과의 대화 건의 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3년간 읍면동 연초방문 및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579건 중 완료사업 224건을 제외한 355건을 관과소장과 읍면동장이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건의사항은 2011년 56건, 2012년 101건, 2013년 198건으로 2013년 6월말 기준 실적은 완료 79건, 추진 중 94건, 추진 예정 99건, 추진 불가 83건이다.

김생기 시장은 시민 건의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강조하며 “건의사항의 신속한 해결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시민과의 소통이 우선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예산 수반의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인 만큼 추경 및 2014년 예산확보, 중장기적인 반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시는 지난 3월 부시장 주재로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실무부서 추진 협의회를 열어 건의사항 처리에 만전을 기해왔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 소통행정 추진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s

# 단신

## 전주시, 장미철 오염물질 무단배출 특별단속

전주시는 2일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사업장내 보관·처리중인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돼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 특별단속·감시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주시와 완산·덕진구청 환경관계 부서 직원으로 특별 감시반을 편성,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 및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모바일 SMS를 통한 지도·점검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다.

/전주=박금석기자 전북취재본부장

## 남원, 물놀이 위험구역 10곳에 안전요원 배치

남원시는 오는 8월31일까지 2개월간 남원시 소재 물놀이위험구역 10개소에 안전요원 20명을 배치한다. 지난해 물놀이 사고가 발생한 산내 내령계곡 3곳을 비롯해 금지면 2개소, 노암동 2개소, 도동동 1개소, 산동면 2개소 등 수심이 깊고 과거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2인 1개조씩 총 10

개조를 편성했다.

지난 1일에는 물놀이안전요원으로 선발된 20명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남원소방서에서 열리기도 했다. 심폐소생술이 끝난 후에는 남원관광객 앞 요원편에서 안전용품 사용요령교육이 실시됐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 정읍 ‘단풍미인 씨없는 수박’ 본격 출하

정읍시 대표 농산물인 정읍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의 본격적인 출하시기를 맞아 오는 12일부터 1박2일2정읍수박연구회주관으로 제10회 정읍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잔치(품평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정읍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축제는 명실상부 수박

대표 축제로, 그동안 수박명인 이석 변 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읍수박연구회 회원들의 노력의 결실을 엿볼 수 있는 자리다. 이번 행사에서는 방문객들에게 씨 없는 수박을 현장 판매하고 택배서비스를 통해 시종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s

# 순창, 귀농귀촌 지원센터 문 열었다

## 군, 풍산면에 개소...교육관·숙식시설 등 갖춰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귀농귀촌 페스티벌을 개최한 순창군이 2일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본격 개소했다.

순창군은 2일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황숙주 군수를 비롯해 전국 귀농운동본부 정용수 대표와 전희식 공동대표, 귀농귀촌인, 지역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사진)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3개월 동안 장기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 11명도 참석했다. 군비 2억원을 들여 풍산면 옛 면사무소를 리모델링한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교육관과 사무실, 숙식시설을 갖췄다.

교육동(476.9㎡), 숙식동(198.8㎡) 등 2개 동으로 구성됐으며, 귀농귀촌인의 단기·중장기 교육 등과 전문적인 상담을 맡게 된다. 하반기에만 모두 14차례 300명에 대한 귀농교육이 예정돼 있다.

교육 내용은 특화작목인 10대 작목

을 중심으로 재배와 유통, 농산물 가공교육, 난로 및 화덕, 태양광 등이 포함된 자연에너지 활용기술, 생태건축 등이다.

군은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민들이 신속하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개소식에서 “귀농귀촌 페스티벌 행사를 통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예비 귀농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았다”며 “오늘 문을 연 이곳 귀농귀촌지원센터가 그



순창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재능기부사업 가운데 하나로 적정기술을 가진 청년장들을 모아 8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해 난로, 화덕, 태양광 등과 관련 순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군산해경, 피서철 대비 여객선·터미널 등 안전점검

군산해양경찰서는 2일 “지난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여객선 9척·유람선 6척·터미널 등 7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여 2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여객선 객실 비상구의 점등 상태 불량 등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적사항 5건에 대해 시정 조치 후

재점검한다. 또 여객선의 소화기 점검 기록 누락, 소화기 위치표시 누락 등 경미한 23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했다. 구관호 군산해경서장은 “이번 여름에 섬지역을 찾는 피서객이 예년에 비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 전북취재본부장